

문서번호 : 세경연 제21-002호

배포일시 : 2021. 01. 21.

보도일시 : **오전 10시 이후**

제 목 : 세계경제연구원(IGE) 2021년 글로벌 경제 전망 웨비나 개최 안내

(2021년 1월 21일, 서울)-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오늘 ‘2021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예측과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사로 참여한 Decision Economics 대표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사이나이 (Allen Sinai)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팬데믹이 아닌 백신의 해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주식시장 강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백신 공급 지연 및 글로벌 증시 거품 우려 등을 감안하면 다소 낙관적인 견해다.

경기예측 권위자인 사이나이 박사의 올 한해 실질 GDP 성장전망 평균은 미국 4.7%, 중국 7%, 일본 2.7%, 한국 3.2%이다.

한편, 작년부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괴리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향후 코로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과 바이든 행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등을 토대로 한 글로벌 경제 확장을 선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미국채를 비롯한 글로벌 금리가 다소 가파른 상승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미달러 반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올해 미달러 약세가 다시 가시화 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미달러가 현 수준대비 5~10% 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계량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4년간의 경제성장세를 감안할 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은 현재 과대평가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강한 회복세 및 대외 수출증가 등으로 향후 12개월간 더 나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0.5%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변화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왜곡되고 분열된 정책과 동맹 등을 다시 화합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미중 긴장 관계는 계속되겠지만 냉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